

중학교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중심으로

안미선⁺ · 정성지¹ · 이민지²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¹ · 청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²

**Effects of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Self-Efficacy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Career,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Ahn Misun⁺ · Chung Sungjee¹ · Lee Minji²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¹

Division of Design, Cheongju University²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effects of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and its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s. The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as collected from 114 participants enrolled in middle schools in Seoul or Kyu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mon factor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using SPSS 18.0/Windows.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self 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after the program than before. Also, they showed high program satisfaction score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basic information for work experience program developers for high and middle school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Ahn Misun, Tel. +82-10-9141-8651, Fax. +82-02-809-8655
E-mail: misunsss@hanmail.net

This research was presented at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Key words: career maturity(진로의식성숙도),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패션관련 직업체험프로그램),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진로결정 자기효능감), work experience program(직업체험교육)

I. 서론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각인시키고자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으므로 직업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먼저 직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은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특기 적성의 개발로 인해 직업에 대한 성취욕의 향상 및 만족감을 증대시키며,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E. Oh(2014)의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경기도내 특정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체험활동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관한 W. Park(2012)의 연구, 그리고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 분석을 연구한 N. Lee(2013)의 연구 등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토대로 한 관련 연구가 매우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패션관련 직업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직종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션관련 직업체험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참여 전과 후의 비교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알아봄으로써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Solber(as cited in Jeeyoun Lim & Kim, 2008)의 연구에서 진로와 직업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신성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관련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학업성취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You(2005)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목표에 대한 직업적 과제 수행, 직업 관련 정보, 문제 해결, 자기평가 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E. Lee & H. Lee(200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성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 Kim, Yu, and Cho(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진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Hong(2010)은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Ahn(2011)은 진로교육의 프로그램제공은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에 맞는 직업선택의 목표의식이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2.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

진로의식성숙도란 개념은 Super(1955)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직업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직업성숙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했다(T. Lee, 2008). 또한 진로의식성숙도란 발달적 개념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수행 정도에서 차지할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Jaeyeon Lim, 2007).

진로의식성숙도를 M. Choi(2005)는 진로선택의 일관성과 진로선택 능력으로 분류하였으며 Jyung et al. (2012)는 진로의식성숙도의 하위영역으로 진로선택에 관한 확신성, 진로선택과정에서의 관여성, 독립성, 진로정보처리능력, 현실조화성의 5개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Jang(1991)은 진로성숙도 검사 구성요소를 태도검사(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와 능력검사(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로 구분하였고, S. Park(2011)은 진로성숙도를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분하였고 태도척도를 제외한 능력척도 중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계획, 문제해결 등 총 5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ang(2010)는 기술, 가정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 Kim, Yu, and Cho(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가정교과 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의류는 전통적으로 가정학 분야에서 발전해서 여성적인 학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M. Lee, Lee, Moon, & Lee, 2010). 국내 의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Suk(2011)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패션전공자들은 초기에는 디자이너를 지망하고 학교에 입학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머천다이저, 모델리스트 등을 알게

되고 이러한 분야로 희망 진로가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류의상학 전공에서는 앞으로 패션마케팅 관련 강의를 더 개설해야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2.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는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로 나온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1월 4일에서 11월 30일까지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114부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J. Kim(2013), Yi(201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5 문항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에 관한 문항은 M. Choi(2005), Kang(2010)의 선행연구를 토대

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14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경험자 35명(30.7%), 여학생 경험자가 79명(69.3%)이었으며, 학년 층은 중학교 1학년 74명(64.9%), 중학교 2학년 22명(19.3%), 중학교 3학년 18명(15.8%)이었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지역이 57명(50.0%), 경기지역이 57명(50.0%)으로 분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114명이었으며,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경험자의 참여 동기 빈도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경험자는 114명이었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구분		Frequency (n=114)
Gender	Male	35(30.7)
	Female	79(69.3)
Grade	1 st graders	74(64.9)
	2nd graders	22(19.3)
	3rd graders	18(15.8)
Residence	Seoul	57(50.0)
	Kyunggi	57(50.0)
Total	114	

Table 2. Participation Motives of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Participation motives	To know about occupations I have interested in	64(56.1)
	To gain information about my future career	48(42.1)
	To gain information about professional job experience	48(42.1)
	Advice from parents, friends, teachers	16(14.0)
	To meet the instructor as a fashion related job practitioner	24(21.1)
	etc.	4(3.5)
Total	114(100%)	

며, 참여 동기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평소 관심 있었던 직업에 대해 알기 위해'가 64명(5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가 48명(42.1%), '직업의 전문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가 48명(42.1%),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가 16명(14.0%), '강사로 오는 패션관련 종사자를 만나고 싶어서'가 24명(21.1%), 기타 4명(3.5%)으로 나타났다.

3.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 요인분석과 신뢰도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 하위차원은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8.146%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Factor	Questions	Loading	Eigen Value	%	Cronbach's α
Factor 1 Aptitude for fashion related job	I like fashion related jobs.	.836	7.328	52.344	.944
	I think a fashion related job is good for me.	.788			
	A fashion related job is vb good for my aptitude.	.763			
	I have an interest in fashion related jobs.	.646			
	I will choose a fashion related job as my career.	.617			
	I think much about fashion related jobs.	.592			
Factor 2 Assessment of fashion related job	I think fashion related jobs are better than other jobs.	.795	1.192	8.518	.890
	I like to know more about fashion related jobs.	.653			
	Fashion related jobs seem to be promising.	.597			
	I have an interest in fashion related jobs.	.586			
	Fashion related jobs seem to be good.	.548			
Factor 3 Understand-ing of fashion related job	I got to know about fashion coordinator as a career.	.834	1.020	7.284	.824
	I got to know what fashion designers do.	.788			
	I know various fashion related jobs.	.708			
Cummulative %			68.146		

요인 1은 패션직업에 관한 흥미와 적성으로 이루어진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적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7.328, 설명량은 52.344%, Cronbach's α 값이 .944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패션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느낌의 평가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평가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192, 설명량은 8.518, Cronbach's α 값이 .890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패션관련 직종에 대해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이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020, 설명량은 7.284, Cronbach's α 값이 .824로 나타났다.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이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020, 설명량은 7.284, Cronbach's α 값이 .824로 나타났다.

4.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경험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뢰도는 1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86이었다.

5.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교분석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교분석을 Table 4와 같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4.19)이 참여 전 집단(3.87)보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 집단상당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Hong(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 성숙도 비교분석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성숙도 비교분석은 Table 5와 같다.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성숙도의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해에서 참여 전과 참여 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가(3.61) 참여 전 (3.33)보다 패션 관련 직업 효능감의 직업 적성이 높았다($p < .05$). 또한 참여 후 집단(3.89)은 참여 전 집단(3.71)보다 패션 관련 직업 평가가 높았다($p < .05$). 참여 후(4.08)는 참여 전 (3.47)보다 패션 관련 직업 이해가 높았다($p < .05$).

패션 관련 직업 프로그램의 참여 후 는 프로그램의 참여 전 집단에 비해 패션 관련 직업 적성요인, 패션 관련 직업 평가요인, 패션 관련 직업 이해요인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Table 4.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Before the program (N=114) M (S.D.)	After the program (N=114) M (S.D.)	t
		3.87(.72)	4.19(.6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Differences in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Program

Factors		Before the program (N=114) M (S.D.)	After the program (N=114) M (S.D.)	t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Fashion related vocational aptitude	3.33 (.74)	3.61 (.82)	-4.883*
	Fashion related vocational assessment	3.71 (.59)	3.89 (.65)	-3.902*
	Fashion related vocational understanding	3.47 (.64)	4.08 (.61)	-9.156*

* $p < .05$, ** $p < .01$, *** $p < .001$

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실험집단 보다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청소년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J. Kim(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체험여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단 보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패션과 관련된 과목설치가 미비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로 인해 수업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관련 과목은 '가정'과목의 일부분에 한하고 있다. 교과와 내용도 과목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속하다 보니 교과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류가 옷을 입는 한 패션분야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패션분야의 과목의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성숙도의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해에서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단 보다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해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학생들이 패션관련 직업 분야의 수업으로 인해 이해도와 관심도, 흥미도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 수업과정에서는 수업내용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도 향상에서만 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패션관련 분야에 관련된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의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션관련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있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져 설문 대상자가 설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는가를 통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의 인지 부분은 면접을 통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학생들의 특성과 패션관련 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체험교육의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층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 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h. (2011). *Effect of career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s motiv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Cha, S. (2005). *Differences in basic occupation abilities and career search abilities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work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i, B. (2013). The effects of intrinsic, extrinsic work value on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ccording to gender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21(1), 1-18.
- Choi, M. (2005). *The effect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Hwaseong, Korea.
- Han, S. (2009). An analysis of clients needs participating in work experience program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19-38.
- Hong, H. (2010). *The effect of a career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G. (2009).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experience training on choosing their courses for technical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Jang, S. (1991).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91(5), 1-143.
- Jyung, C., Kim, B., Song, B., Choi, D., Lee, J., Kim, E., & Joo, H., & Kim, B. (2012). The effects of vocation experience activ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cademic motive, creativity and socia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17.
- Kang, C. (2010). *The affects of career education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 on middle school on students'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 Kim, B., & Jeon, J. (2004). The effect of the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young's careed decision making and vocational inform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7(1), 20-38.
- Kim, J. (2013). *The effect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areer self-efficacy-teenager occup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N., Yu, H., & Cho, Y. (2012). The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 related with home economy & technology subject to improv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1(2), 167-192.
- Kim, S. (2013).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areer maturity, career-identity, and career-decision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43-59.
- Kim, S., & Park, M.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lf-efficacy scale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385-397.
- Kim, S., Yu, H., & Cho, Y. (2013). The development of multiple Intelligences- 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2), 43-66.
- Lee, E., & Lee, H.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4(1), 109-120.
- Lee, J.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N. (2013).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youth in work experience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gki University, Suwon, Korea.
- Lee, M., Lee, Y., Moon, H., & Lee, Y. (2010). Career decision level of clothing and textile major collage students in Seoul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1), 1870-1879.
- Lee, T. (2008). *Relationship between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career consciousness in Taekwondo athle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e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of youth's career vocati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 Lim, J. [Jaeyeon] . (2007). *A study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v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Jeeyoun] , & Kim, J. (2008). Current state and task of youth vocation experience activity for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5(1), 143-170.
- Nam, J., & Park, H. (2012). Fashion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adult learne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0(8), 838-853.
- Oh, E. (2014). *The effect of using work experience in career programs on middle-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ies and vocational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Oh,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on the self-development and career explor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S. (2011).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s using the career portfolio on high school student's maturity r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W. (2012).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job-experienc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Ro, M. (2003). *Effect recognition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 of job experience program for yo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Korea.
- Suk, J. (2011). *A study on the job analysis and educational program of national fashion merchandis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Yi, N. (2012).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youth in work experience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 You,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r students of secretarial department in junior college.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14(1), 193-217.

Received(October 6, 2014)

Revised(November 4, 2014; November 23, 2014)

Accepted(December 22, 2014)